

지역연구로서의 ‘아세안 연구’:

학술적 함의와 현실적 필요성*

김 동 엽**

요약

“한국인은 동남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고 신뢰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동남아 사람들은 한국을 별로 신뢰하지 않으면서 대중적인 인기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동상이몽 같은 상황은 한국인과 동남아인 간의 상호 이해 부족과 오해 그리고 편견이 낳은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동남아를 미래 동반자로 상정하는 ‘신남방정책’이 바로 잡아야 할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동남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로막고 동남아 연구의 제도적 확장에 장애가 되는 동남아라는 용어에 담긴 편견을 바로잡으려는 방안으로써 아세안 연구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학술적 차원에서 아세안은 주로 지역 기구로서 제도적 연구에 국한되어 왔다. 그러나 아세안 10개국을 포괄하는 지리적 경계와 2015년 아세안공동체 출범 이후 단순히 지역 기구를 넘어 동남아 지역 정체성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연구의 대상으로 접근할 수 있다. 현실적 측면에서 한국인은 ‘아세안’이란 용어를 ‘동남아’란 용어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각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언어가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동남아 지역 연구 후학들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신윤환 선생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세안연구원 부교수, dykim@bufs.ac.kr

‘동남아’라는 용어에 내재한 편견을 해소하고 상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안으로써 ‘아세안’이 가지는 가능성을 말해 준다. 또한, 한국 동남아 학계가 지속해서 주장하는 대학의 동남아 관련 학과 설립과 같은 교육과 연구의 기반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아세안, 동남아, 아세안공동체, 신남방정책, 지역연구, 아세안 연구

I. 머리말

근래 한국과 동남아시아(이하 동남아) 간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해지고 있다. 상호 간의 인적·물적 교류의 양만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다.¹⁾ 강대국 간의 세력 경쟁이 심화하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현실 속에서 한국에게 동남아 지역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며, 이는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추진계획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실현코자 하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한-아세안공동체”는 단순히 경제적 상보성이나 정치·안보적 중요성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동반자로서 아세안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한국과 아세안이 이러한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느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기 힘들다. 근래 동남아 각국에서 불고 있는 한류의 영향으로 동남아 대중들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크게 증대되고 있음을 각종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국동남아연구소 2010; 한국동남아연구소 2017).

그러나 이처럼 동남아에서 한국에 대한 대중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

1) 아세안은 한국경제에 무역 2위(1위 중국), 투자 2위(1위 미국), 건설공사 1위(2위 중국), 노동 2위(1위 중국), 한류 3위(1위 일본, 2위 중국), 관광 1위를 차지하고 있다(한-아세안센터 2020).

는 것이 국가 간 혹은 지역 간 관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말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아세안 여론주도층이 미·중 경쟁 상황에서 필요한 제3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가장 선호하고 신뢰하는 세력은 일본으로 나타났다(Tang 2020, 30). 전체 응답자 38.2%가 일본을 선호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답했으며, 그 뒤로 유럽연합이 31.7% 지지를 받았다. 반면 한국은 겨우 3%를 얻어 호주, 인도, 러시아, 뉴질랜드에 이어 7위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두고, “한국인은 동남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고 신뢰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동남아 사람들은 한국을 별로 신뢰하지 않으면서 대중적인 인기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 이해 부족으로 인한 동상이몽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해석한다(전제성 외 2020, 12). 이러한 상황은 한국 정부가 아세안을 미래 동반자로 상정하고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우선 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 국가와 국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상호관계를 증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한 인식도 조사에서, 한국인의 동남아에 대한 이미지는 ‘더위’, ‘휴양지’, ‘후진국’, ‘빈곤’ 등의 키워드가 부각되었고, 동남아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는 ‘이주 노동’, ‘국제결혼’, ‘피부색’ 등 부정적이며 차별적인 키워드가 수위를 차지했다(한국동남아연구소 2017).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사회에 급속히 증가한 동남아계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도 이러한 조사 결과와 그 흐름을 같이 한다. 한국 사회에서 외국계 특히 동남아 출신에 대한 편견이 생겨난 주요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선진국 담론’이 유력하다. 이는 근대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 과정에 형성된 담론으로 선진국에 대해서는 부러움과 열등감을, 후진국에 대해서는 우월감과 편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김종태·한기덕 2013). 이러한 한

국 사회의 선진국 담론에 기초한 차별의식은 대부분 간접경험이나 미디어를 통해 매개된 경험이 사회문화적으로 공유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고정관념화된 것으로 본다. 특정 인종이나 국가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집단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태도나 감정, 더 나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남아에 대한 한국인의 전반적인 인상은 동남아 특정 국가나 국민 개개인에 대한 인식과 다르지 않게 나타난다(김희정 2017, 128, 146). 이는 한국인이 동남아를 개별적인 부분들로 보지 않고 하나의 전체적인 이미지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개별국가와 국민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형성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국 사회에 동남아에 대한 편견이 형성되고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 동남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신윤희(2015, 55)에 따르면, 한국에서 접하게 되는 동남아 관련 정보는 주로 상업적 출판사에 의해 조장되고 있는 무분별한 동남아 관련 서적들이며, 이로 인해 동남아를 단순한 호기심과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 동남아에 대한 보다 진지한 논의가 대중적으로 확산하지 못하는 데에는 교육기반의 절대 부족을 들기도 한다. 2019년 현재 한국 대학의 동남아 관련 학과(전공)는 고작 15개뿐이다. 이에 비해 중국학과(전공)는 무려 255개, 일본학과(전공)는 181개나 된다(전제성 외 2020, 3). 그나마 존재하는 동남아 관련 학과도 대부분 어문학 중심으로 되어 있다. 지역연구 분야의 입문으로서 언어학습은 중요하지만, 언어의 습득이 분과학문과 결합하여 지역연구자로 성장하는 체계가 한국의 동남아 교육 분야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동남아 강좌의 희소성, 분절성, 편중성을 해결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부에 동남아 지역전공을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전제성·이재현 2008, 269, 281). 그러

나 이러한 학계의 주장은 좀처럼 실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 부족과 이를 개선할 교육기반, 특히 대학에서 동남아 관련 학과 개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동남아에 대한 편견에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아세안 연구’에서 찾고자 한다. 아세안(ASEAN)이 동남아 지역 10개국으로 이루어진 지역 기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오늘날 아세안이란 용어는 단순히 지역 기구를 가리키는 의미를 넘어 동남아 지역 정체성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15년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 출범과 더불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신남방정책’의 주요 대상으로서 아세안을 부각시키면서 각종 언론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을 비롯하여 한-아세안센터, 아세안문화원, 한-아세안 ICT 융합빌리지 등 다양한 기구들에 사용되는 아세안이란 용어는 지역 기구라는 의미보다 동남아 지역 자체를 의미하는 용어로 받아들여진다.

학술적 차원에서도 아세안 연구에 관한 관심과 논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 지역 내에서 아세안과 관련한 교육 및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아세안 연구소들이 새롭게 설립되고 있다. 더불어 아세안 관련 연구자 양성을 위한 대학원 프로그램의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태국(타마삿대학교), 말레이시아(말라야대학교), 그리고 5개국 개방형대학교(인도네시아의 Universitas Terbuka, 말레이시아의 Open University of Malaysia, 태국의 Sukhothai Thammathirat Open University, 베트남의 the Hanoi Open University, 그리고 필리핀의 University of the Philippine Open University)에서 아세안 연구 석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김형중 2017, 200; Curaming 2018, 47). 말라야대학

교의 아세안 연구 석사 과정은 제도나 기구로서의 아세안을 연구하는 것이지 지리적 의미를 내포한 지역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타 마삭대학교와 개방대학교는 아세안을 기구보다는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교과목(모듈)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또한, 지역연구의 전형인 언어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도 이러한 의미를 내포한다. 이처럼 아세안은 점점 더 기구가 아닌 사람(people)으로 보고, 또한 전체를 나타내는 지역으로 간주됨으로써 점차 동남아라는 용어에 대한 약식으로 진화하고 있다(Curaming 2018, 43, 47).

이처럼 새롭게 부상하는 아세안 개념의 활용이 현실적 차원에서 동남아 교육 분야의 제도적 기반 확대에 유용함을 증명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태국의 카셋스리(Kasetsiri, 2015, 120)는 윌라일락 대학교(Walailak Univ.)의 동남아학과(Southeast Asian Studies)는 2002년에 시작하여 2011년에 아세안학과(ASEAN Studies)로 명칭을 변경한 후 등록 인원이 8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2007년 제12차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아세안공동체 출범에 대한 합의와 함께 2008년 아세안 사무총장에 취임한 수린 피투스완(Surin Pituswan)이 아세안 연구를 적극 추진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봤다. 교육 부분에도 아세안 연구의 확산은 부분적으로 대학 행정가들의 기업가적인 창의적 생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기도 하며, 위로부터의 공식적인 장려와 일반 대중들 사이의 아세안에 대한 점증하는 호기심과 관심을 연계하여 기회를 포착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Curaming 2018, 51).

한편 한국의 아세안 연구는 냉전체제 하에서 국제관계학 중심의 접근을 통해 지역협력과 지역기구의 사례로 분석되거나 강대국 중심의 정치·안보적 사안과 많이 연계되었다. 그리고 탈냉전 시기에 접어들면서 한국과 아세안 간의 경제 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경제학적 분석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김형중 2019, 299). 이처럼 연구 범위의 제한뿐만 아니라 양적인 면도 타 국가들과 비교해서 뒤쳐져 있다.²⁾

그동안 아세안 연구가 지역연구와 분리된 채 각 분과학문의 이론을 시험하는 사례로만 다루어짐으로써 아세안공동체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김형중 2019, 318). 이제 한국 동남아 학계도 아세안 연구에 대한 학술적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고,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어떠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계기로 한국 동남아 학계가 지역연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동남아’를 단순한 개별국가의 물리적 합이 아닌 유기적 전체로서 인식하고 연구하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 기구로 한정했던 ‘아세안’의 의미를 지역연구의 지리적 단위이자 정체성의 주체로 인식하는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한국 동남아 학계에서 그다지 심각하게 논의하지 않았던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동남아’의 학술적 의미를 살펴보고, 2015년 아세안공동체 출범 이후 동남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세안 연구’의 부상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현실적인 차원에서 한국 사회에 ‘동남아’라는 용어에 내포된 편견을 해소하고 새롭게 지역을 인식하는 용어로서 ‘아세안’의 유용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동남아 지역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의 전환을 모색하고,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제2절에서는 지역연구의 범위를 규정하는 ‘지리적 인식’과 지역연구 대상의 특징을 규정하는 ‘지역 정체성’을 중심으로 ‘동남아’와 ‘아세안’의 차이를 기존 논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3절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편견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동남아에

2) SCOPUS 데이터베이스에서 아세안 관련 학술논문 목록을 추려내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한국의 아세안 연구가 생산성 차원에서 11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위는 말레이시아, 태국, 호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미국, 영국, 일본, 필리핀, 중국, 한국 순이었다. 게다가 최근 5년간의 연구 결과물만 놓고 보면 오히려 12위로 떨어진다(김선희 2018, 137-138; 전제성 2019, 335-336).

대한 인식 변화의 방안으로써 ‘아세안’ 용어의 가능성을 다양한 양적 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마지막 절에서는 아세안 연구의 학술적 의미와 아세안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한국의 동남아 학계와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에 가지는 의미를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II. 지역연구로서 아세안 연구의 학술적 함의

1. 지리적 인식 논의

지역연구의 일반적인 목적은 “시간과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살아있는 사회적 실체(entity)를 이해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한다(Pulteney 1985, 3; 전경수 1999, 42 재인용). 지역연구라는 분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지역’(area)이다. 그리고 이 지역 개념은 공간(space)을 중심으로 한 지리학의 ‘지역’(region) 개념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지역연구에서 지역의 개념은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지극히 조작적(operational)인 개념일 수밖에 없다. 조작적 상황에서 잠정적으로 탄생하는 지역의 개념은 각각의 연구를 고려하는 독특한 방법론적인 함의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전경수(1999, 31)는 다양한 지역의 개념들이 상호배타적일 필요는 없으며, 각각 추구하는 방법론의 차이만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만족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연구의 대상으로서 ‘지역’은 해당 지역의 고유한 자연적·문화적 특성에 의해 구분되거나 지역민들의 정체성에 의해 구분되며, 혹은 위의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 구분한다.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지역’은 사회적 구성물이며 사회적 권력 관계의 한 형태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은 지역 자체와 외부에 있는 복잡한 제도적 상호작용에서 기원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결과 및 표현

으로 간주하기도 한다(Hooi 2020, 131; Paasi 2011, 10).

한국 동남아 학계에서 그동안 연구의 공간적 대상인 동남아 지역에 대한 인식론적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계의 대표적인 학술지인 『동남아시아연구』에 게재된 총 552편의 논문 가운데, 박장식(2000)의 “동남아 지역성에 대한 인식론적 대비”가 유일하다. 저서의 경우에도 일부 관련된 글들을 모아 출간한 박장식 역음(2019), 『총체적 단위로서의 동남아시아의 인식과 구성』이 있지만, 동남아의 지역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이외에도 동남아를 개별국가의 합이 아닌 하나의 연구 단위로 규정해 보려는 노력은 역사학 분야에서 일부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최병옥의 『동남아시아사: 전통시대』(2015)와 『동남아시아사: 민족주의 시대』(2016)가 있으며, 조흥국의 『동남아의 역사와 문화: 여성이 이끄는 세계』(2019) 등이 있다. 이보다 먼저 동남아 역사에 관한 해외 서적을 번역하여 국내에 소개한 책들도 일부 있다.³⁾ 그 외의 분야에서 동남아를 개별국가의 합이 아닌 전체로서 인식하고 연구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일부 정치학자들에 의해 동남아를 “열린 지역체계”로 인식하고,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주창하는 연구가 있지만(박사명, 2006), 연구 단위로서 동남아의 지역성을 인식하고자 한 연구로 볼 수 없다. 한국 동남아 학계에서 동남아 지역의 구분과 연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이유에 대해 전제성(2014)은 지리학과의 연계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

이처럼 한국 동남아 학계는 전체로서의 동남아를 인식하고 연구하기보다는 개별국가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 집중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동남아 연구 학술지인 『동남아시아연구』의 총 게재 논문 552편(2020년 30권 3호까지) 가운데 지역을 포괄하는 ‘동남아’나 ‘아세안’을 논문 제목에 사용한 경우는 겨우 10%에 불과하다.⁴⁾ 게다가 제목에

3) 밀턴 오스본. 조흥국 역. 2000. 『한 권에 담은 동남아시아 역사』. 서울: 도서출판 흐름; 매리 하이듀스, 박장식·김동엽 공역. 2012. 『동남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서울: 솔과학.

‘동남아’나 ‘아세안’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관련된 일부 논문을 제외하면 대부분 몇몇 개별국가를 사례로 다룬 논문들이다. 한국의 동남아 연구의 역사와 현황을 총망라한 『한국의 동남아시아 연구』(2019)를 보더라도 국가별로 연구현황을 정리하고 있으며, <표 1>처럼 동남아를 총체적으로 다룬 아세안 연구는 연구자 수나 연구 결과물에 있어서 대단히 제한적임을 볼 수 있다.

<표 1> 동남아 관련 국내 학위논문, 학술논문 및 단행본⁵⁾

지역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학술 단행본	합계
	석사	박사			
베트남	1127	120**	1459	-	2,706
싱가포르	251	14	1405	22	1,692
인도네시아	410	52	672	41	1,175
태국	318	52	704	25	1,099
필리핀	217	38	409	30	694
캄보디아	257	15	253	23	548
미얀마	134	27	212	10	383
말레이시아	85	11	274	11	381
라오스	84	9	115	7	215
동티모르	38	2	7	2	49
브루나이	7	1	8	1	17
아세안	155	8	301	67	531
합계	3,083	349	5,819	239	9,490
아세안 비율(%)	5.0	2.2	5.1	28.0	5.5

출처: 전제성 2019, 335, <표 10-2> 재구성.

* 현지인 유학생 논문 포함.

** 한국교육학술정보(RISS)에서 검색된 외국대학 학위 취득 한국인 포함.

4) 총 550편의 게재 논문 중 논문 제목에 동남아를 사용한 논문은 55편이며, 아세안을 사용한 논문은 44편이다.

5) 본 표는 다양한 연구자들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조사 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보기 바란다. 베트남의 경우 학위논문과 학술지는 1991년부터 2015까지 조사한 것이다. 베트남 단행본을 포함해 나머지 경우는 해방 이후부터 시작하여 2016년(라오스), 2017년(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말레이시아, 아세안), 그리고 2018년 8월(캄보디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동티모르)까지이다.

이러한 개별국가 중심의 연구 경향은 한국의 동남아 학계가 서구에서 개발되고 정착된 일반적인 지역연구 방법인 1) 현지어 집중 교육, 2) 현지조사 수행, 3) 현지 역사, 관점, 자료, 해석 중시, 4) 세부 관찰을 바탕으로 기초이론을 테스트 및 비판 도출, 그리고 5)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영역을 가로지르는 학제적 연구의 수행 등을 충실히 따라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특정한 지역 언어의 습득이 동남아 지역 연구의 입문으로 강조되었고, 이후 연구 수행이 해당 국가와 지역에 국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각각의 연구 결과물들을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엮어서 출판한 책의 제목에 동남아라는 지리적 용어가 단순히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남아에 대한 인식론적 논의는 정말 필요치 않은 것인지, 아니면 동남아 연구공동체로서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시점이다. 특히 2015년 아세안공동체 출범은 동남아 지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다. 동남아라는 지역 단위에 대해 박장식(2000, 226)은 “매우 포괄적이고 분산적이며 애매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동서양의 교류 초기에 형성된 동남아에 대한 개념은 결코 어떠한 생태적 자연환경이나 활동 주체인 인간에게 초점을 두고 구획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⁶⁾ 또한, 동남아는 19세기 또는 20세기 정치적 편의주의 시대가 낳은 자의적 호칭에 불과하며, 세계적인 강대국이 아니라면 이러한 광역적 개념을 이해할 필요조차 없었을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동남아를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여 살펴볼 필요 중의 하나는 실재적인 10개의 국가

6) 동남아시아(Southeast Asia)라는 영어 표현은 1839년 미국인 목사 말콤(Howard Malcom)의 *Travels in South-Eastern Asia*에서 찾아볼 수 있고, 1942년 빈 출신으로 미국에 이민 간 하이네-겔더른(Heine-Geldern)이 “Conceptions of State and Kingship in Southeast Asia”라는 논문에서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된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제2차 대전 중인 1943년 지금의 스리랑카에 설치된 동남아사령부(South-East Asia Command)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장식 2000, 227-228).

가 하나의 단위로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 즉 하나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과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박장식 2000, 244).

국외로 눈길을 돌려보면, 동남아의 지역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쉐넬(Schendel 2002, 648-649)은 지역연구에서 ‘지역’을 규정짓는 중요한 세 가지 원칙으로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장소, 상징적 공간으로서 지식 창출의 단위, 그리고 제도적 공간으로서 지역 연구자들의 활동 무대” 등을 꼽고 있다. 여기에서 지리적 추상은 한 지역의 시작과 끝이 명확해야 하지만,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동남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동남아는 대륙부와 도서부로 나누어져 있어서 타 지역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해당 장소 내에 사는 사람들의 문명, 언어, 종교 등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식민지 이전 시대 전통적인 왕국의 형태를 중심과 연계된 영향력의 범위를 나타내는 만달라(mandala) 개념에 비유한 것도 지리적 범위와 경계에 대한 구분이 동남아에서는 중요시되지 않았던 점을 반영한다. 게다가 동남아 지역연구로서 종교와 문화, 그리고 문명과 지역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 질문들은 최근 부상하는 융합, 초국가주의, 지구적 전환과 같은 연구 프로젝트 주제와 함께하기 쉽지 않다. 이는 지역연구에서 강조하는 지리적 구분이 점차 그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chendel 2002, 658).

한편 주변 일본의 동남아 학계도 일찍이 지역연구 방법과 함께 동남아 지역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소개된 바 있는 『지역연구의 방법』(야노 토루 엮음 1997)과 『지역연구와 세계단위론』(야노 토루 엮음 1999)은 일본 동남아 학계에서 동남아의 지역성을 정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볼 수 있다. 특히 다카야 요시카즈(1997)는 ‘지역’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로 독자적인 가치체계를 지닌 ‘지역’이 근대주의에 기초한 국가가 가지는 다양한 문제점을 대신할 단위로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유감스럽

제도 ‘지역’을 파악하는 좋은 방법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발 더 나아가 일본의 지역연구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이슈들을 다룰 글로벌 연구로 나아가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후쿠다케(Fukutake 2015, 87)에 따르면, 미래의 지역 연구자는 특정 언어나 역사를 넘어 다수의 국가와 지역을 이해해야 하며, 국가 정책에 공헌하기보다는 이주나 전쟁, 환경보전과 같은 전 지구적 이슈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지역’이라는 고정된 지리적 단위를 넘어 기존 지역연구의 목적과 지역연구 학계가 재구조화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처럼 지역연구 단위로서 동남아의 지리적 인식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며,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화하고 있다. 대부분의 동남아 연구자들은 지식 탐구의 공간적 범위로서 현대의 정치적 경계, 즉 동남아 10개 국가로 구성된 아세안과 회원가입이 예상되는 동티모르를 포함한 지역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인식은 주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역사적 과정에서 구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967년 아세안을 출범시킨 방콕선언에 언급된 “동남아 지역”은 오늘날 동남아의 지리적 범위와 차이가 있다. 당시의 동남아 지역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동남아사령부가 위치했던 스리랑카도 포함된 것으로 간주했다. 스리랑카는 실제로 1967년 아세안 설립 당시 창립 멤버로 받아들여졌지만, 국내적인 문제로 인해 마지막 순간에 참여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everino 2006, 46; Henley 2020, 32). 이후 동남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이 변화하여 1981년 스리랑카의 아세안 가입 제안에 대해 태국과 필리핀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다른 회원국들은 스리랑카가 동남아의 지리적 영역 밖에 놓여 있다는 이유로 아세안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부되었다(Indorf 1987, 97; Henley 2020, 33).

2007년 11월 제13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세안 헌장(ASEAN Charter)에도 지리적 경계를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다. 아

세안 현장에는 회원국이 되기 위한 특별한 요건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네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아세안 회원 자격을 심사한다고 되어 있다. 즉 지리적 위치, 다른 회원국의 승인, 아세안 현장에 대한 동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 등이다(Hooi 2020, 120). 현장에 명기된 ‘지리적 위치’에 근거하여 파푸아 뉴기니(New Guinea)의 아세안 가입은 거듭해서 거부되었다(Thuzar 2017). 반면 인도네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다가 2002년에 독립한 동티모르는 2011년 공식적으로 아세안 가입을 신청했으며, 가입을 둘러싼 여러 경제적,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면 아세안의 11번째 회원국이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향후 동티모르의 가입을 마지막으로 최소한 정치적인 차원에서 동남아의 지리적 경계가 완료될 것으로 보는 입장이 강하다(Henley 2020, 33).

동남아의 경계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아세안 회원국들이 자의적으로 그 경계를 결정함으로써 동남아의 개념을 아세안으로 축소하는 것에 대해 “지적 왜곡”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Cook 2018). 아세안이 동남아를 보다 가시적이고 주목을 받게 만드는 점은 있지만, 동남아를 아세안으로 대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남아라는 정의가 가지는 풍부한 지역적 요소들을 아세안이란 정의에 모두 담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50년 전만 해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졌을 것이지만, 오늘날 아세안이 학문적 추상화나 전략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모든 동남아 국가에 의해 제도화되고 수백만 명의 동남아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는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현실임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다고 본다(Henley 2020, 26).

이상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연구의 단위로서 동남아의 지리적 경계는 여전히 모호하며, 아세안 회원국의 국경을 중심으로 한 지리적 의미도 여전히 논쟁적이라는 점을 볼 수 있다. ‘지역’의 지리적 범위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변화하고 또한 새롭게 구성되는 것임

을 증명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더불어 과학 문명의 발달과 지구화의 경향에 따라 지역의 경계 자체도 점차 그 의미를 상실해 가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지역연구 분야에서 연구의 대상인 지리적 경계를 내포한 ‘지역’에 대한 논의가 없다면 지역연구 자체의 존립 근거를 찾기 힘들 수도 있을 것이다. 동남아 연구에서 경계를 지닌 지역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동남아’는 그 탄생이 외부 세력에 의해 규정된 것이라면, 정치적 영역과 연계한 아세안의 지리적 경계는 지역 내부에서 주체적으로 동남아의 경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지역 정체성 논의

구성주의와 같은 사회이론에서 정체성은 주어진 또는 고정된 것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과정의 일정한 상태로 취급한다. 이에 따라 지역 정체성도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의식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즉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집단 정체성이 개발되는 것이다. 사회화 과정은 참여하는 단위가 공유하는 전통 유산, 유사한 정치체제 또는 공통의 언어와 같은 중요한 구조적 공통성이 부족한 경우에도 시작될 수 있다. 집단 정체성은 제도적 맥락 내에서 행위자 또는 행위자 그룹의 상호작용 중에 그리고 그 결과로 '상상'된다. 따라서 구성단위들 사이의 공통점뿐만 아니라 지역 국가나 제도적 맥락 내에서 사회화 과정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지역의 일부로서 '상상'하는 방식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Acharya 2017, 29-30).

동남아는 인식론적으로나 지리학적으로 그 경계가 정교하지 않았지만, 지역 정체성은 전근대적 의미에서 존재했던 것으로 본다. 초기 동남아는 아마도 집단 공동체로서의 연대감을 공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들 자신을 공동의 세계에 거주하는 동료 정도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Lee 2020, 11). 식민지 이전 동남아 지역에 문화적 연계와 상호작용이 존재했다는 근거는 다양하다. 청동기 시대 동남아 지역 전역에 분포되어 있던 동손(bronds drum) 유적이나 서구의 식민지 이전 힌두-불교 문화를 중심으로 나타났던 고대 왕국들과 그 유산에서도 공통의 문화를 공유했던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박장식 2000; Noor 2016).

오늘날 주권국가를 중심으로 분화된 동남아 정체성은 서구식민주의의 소산이다. 서구 식민주의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여타 국가들과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잘 정의된 정치적 경계를 구분하였다(Kingsbury 2011; Lee 2020, 11). 이후 동남아 사람들은 자신을 주어진 영토 경계 내에서 특정 정치체의 식민지 식민 또는 상상된 민족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식민통치 이전에 존재했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연결은 결국 동남아에서 보다 명확한 범위의 정치적 단위로 대체된 것이다(Lee 2020, 12; Roberts 2011). 결국, 식민통치 이전에 동남아에서 발전해온 동료 의식과 정체성은 약화 되었고, 동남아인들은 스스로를 본질적으로 배타적인 서로 다른 별개의 국가와 공동체의 시민으로 사회화되었다. 식민통치가 끝날 무렵 발달한 민족주의는 동남아 지역공동체가 아닌 식민통치 시기 형성된 공동체를 중심으로 발전했다(Lee 2020, 13; Steinberg 1971). 이처럼 식민지 권력에 의해 규정되고 결정된 정치적 경계는 독립 이후의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 굳건히 보호되고 유지되었다. 과거의 서구 식민지 경험은 동남아 국가들이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게 만들었다. 이처럼 주권 국가로 분열된 동남아 정체성은 처음에는 외부 세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이후 지역 학계, 지역 정치 엘리트, 그리고 개별국가 시민들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었다.

다시금 동남아에 공동의 지역 정체성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은 국가 간 협의에 따른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1961년 말레

이시아의 수상 툰쿠 압둘 라만(Tunku Abdul Rahaman)에 의해 제기되고, 이에 필리핀과 태국이 동의하여 출범한 동남아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ASA)이 지역공동체로서의 초석을 놓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SA는 냉전 시대 공산권의 냉소적인 시각과 인도네시아의 무관심 그리고 회원국인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간 사바(Saba)를 둘러싼 영토 분쟁으로 인해 추진력에 한계를 드러냈다. 그러나 1965년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정권의 출범과 싱가포르의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의 분리 독립, 그리고 인도차이나 전쟁의 심화 등 다양한 국내외적 환경 속에서 1967년 ASA 3개 회원국과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를 포함하는 아세안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이 출범했다(Kim 1998, 37-48). 냉전이라는 엄중한 국제현실 속에서 아세안의 포괄성과 동남아 공동 정체성 추구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과 함께 베트남의 개방정책과 아세안 가입으로 동남아 통합 지역 정체성 형성의 걸림돌이었던 이념적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다. 정치적 문제로 인한 서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7년 미얀마의 아세안 가입 승인은 동남아 국가들의 자주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부 정치적 상황으로 가입이 보류되었던 캄보디아의 1999년 아세안 가입으로 동남아의 통합 정체성을 향한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세안은 2003년 10월 발리에서 ‘아세안 의정서 II’(ASEAN Concord II)을 채택함으로써 지역공동체로 나아가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집단적 정체성의 존재를 통해서만이 지역이 단순한 제도적 통합을 넘어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음을 인식함에 따라 2005년 12월 제11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하나의 비전,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공동체“(One Vision, One Identity, One Community)라는 모토를 채택하였다. 이후 아세안 회원국들은 상호 정보를 공유하며 정치, 안보,

경제 및 문화 분야에서 동남아인들 간의 협력을 촉진할 "우리 의식"이라는 정서를 육성하여 집단적인 아세안 정체성을 배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Murti 2016). 그 결실이 2008년 아세안 헌장(ASEAN Charter)의 발효이며, 이를 기초로 2015년에 정치·안보공동체, 경제공동체, 그리고 사회·문화공동체 등 3개의 기둥을 중심으로 아세안공동체가 출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아세안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정체성의 실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국제정치의 본질을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경쟁으로 간주하는 현실주의적 입장에서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국가 행동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지역협력과 정체성의 취약성을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주권국가가 ‘우리 의식’에 기반을 둔 지역공동체의 구축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에 대해 회의적이다. 현실주의자에게 모든 형태의 지역공동체는 형태로만 존재할 뿐 본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Lee 2020, 4).⁷⁾ 이와 같은 국제정치 이론에 근거하여 아세안 정체성을 부정하는 의견과 더불어 아세안이 가지는 특이성 또한 부정적 의견의 이유가 된다. 존스와 스미스(Jones and Smith 2002)는 아세안을 “수사적 껍질로서 형식은 제공하지만 진정한 지역통합의 실체가 없는 모방 커뮤니티”에 불과하다고 봤다. 구(Khoo 2000)도 아세안이 구상하는 아세안공동체는 진정한 공동체라기보다는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정부 간 이웃 감시 그룹”이라고 하면서 “하나의 비전,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정체성”이라는 모토는 아직 단순한 정치적 슬로건을 넘어서지 못하

7) 물론 자유주의 국제관계 이론에 따르면, 종종 국가 간의 합리적 자기 이익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지역공동체가 나타난다고 본다. 주로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무력 사용 자제와 불간섭 원칙에 대한 집단적 규범을 기반으로 주권국가 그룹으로 구성된 공동체로 아세안을 바라본다(Chang 2016, Sharpe 2003).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계약만으로는 진정한 공동체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일찍이 아세안을 지역공동체로 인정하지 않았다(Puchala 1984, 186-187).

고 있다고 봤다. 아세안이 기본원칙으로 내세우는 국가주권의 신성함과 비간섭 주의는 ‘우리 의식’을 공유한 진정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결정적인 한계로 간주된다(Emmerson 2007; Jones 2015).

한편 지역 정체성으로서 아세안 정체성은 동남아 정체성을 대신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아차리아(Acharya 2017, 25, 37)는 지역으로서의 동남아 정체성을 지역 조직으로서의 아세안 정체성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두 정체성이 겹치고 상호 강화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출처와 각각의 궤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동남아 정체성은 국가주의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아세안 정체성보다 역사적, 사회·문화적 요인에 더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아세안 정체성은 역사가 짧고, 인위적이며, 또한 동남아보다 정치적이며 전략적인 힘에 의존한다고 봤다.⁸⁾ 아세안의 정체성은 그것이 기반하고 있는 보다 넓은 맥락인 동남아 정체성에 대한 고려 없이 그 본질과 전망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록 두 정체성 모두 한계가 있지만 동남아 정체성은 잠재적으로 아세안 정체성보다 더 강력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며, 아세안의 약화 또는 해체보다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연결되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아세안의 출현과 발전 그리고 미래의 관점에서 아세안 정체성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 오늘날 세계에 존재하는 그 어느 지역주의도 처음부터 ‘우리 의식’에 기초한 공동체의 실현을 목표로 시작되지 않았다. 유럽 연합(EU)을 포함한 모든 지역주의는 실용적인 정치적, 경제적 고려에

8) 아차리아의 이러한 견해와는 달리 동남아와 아세안의 차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이들은 동남아도 아세안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이며 엘리트주의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단지 동남아는 외부자에 의해 이 지역이 발견되고 특정 목적에 따라 인식되면서 부여된 이름이라면, 아세안은 부분적으로 지역 내부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아세안 연구가 정치적으로 순수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지역연구로서 동남아연구 또한 역시 정치적 목적에 공헌해 온 것도 부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Curaming 2018, 50-51; Szanton 2004b).

의해 주도되었음도 사실이다. 푸찰라(Puchala 1984, 186-187)의 주장에 따르면, 공동체는 문화적, 물리적 속성의 공통성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이 스스로를 그룹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상호작용과 소속감을 필요로 한다. 마치 앤더슨(Anderson 1983)의 ‘상상의 공동체’와 유사하게, 지역 정체성도 상상할 수 있다.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아세안 시민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연대감, 소속감, 공동 운명을 공유하는 새로운 현실을 지향할 수 있다(Lee 2020, 6-7). 특히 미래지향적 아세안 정체성을 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세안의 정치 엘리트와 시민 모두 식민주의로부터 물려받은 고정적, 안정적, 배타적인 ‘정체성 개념’에서 벗어나, 정체성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상호 겹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리(Lee 2020, 24-25)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식민지 이전의 지역 정체성과 아세안공동체가 지향하는 지역 정체성을 연결하는 “정신적 도약”(mental leap)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늘날 아세안의 지도자들도 진정한 아세안공동체가 엘리트 수준의 상호작용과 신념만으로는 구축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대중들 사이에서 지역적 소속감과 집단적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Caballero-Anthony 2010). 지역 내 국가들은 인위적으로나마 지역 정체성 형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동남아보다는 아세안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아세안이 점차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일례로 아세안 항공(ASEAN airline), 아세안 통행증(ASEAN pass), 아세안 통로(ASEAN lane), 아세안 국가들(ASEAN countries) 등과 같은 용어의 등장이다. 지역의 사람들은 이웃 국가를 여행할 때, 아세안 항공을 이용하여, 아세안 통행증을 이용하여 비자 없이 자유롭게 다니며, 공항에서는 아세안 통로에 줄을 서고, 아세안 대학 네트워크(ASEAN Univ. Network)를 통해 젊은이들이 교류하고, 아세안 장학금(ASEAN scholarship), 아세안 축구

(ASEAN football), 그리고 각종 블로그에서 아세안 생활(ASEAN life)을 읽는다. 이처럼 엘리트 주도로 시작된 아세안은 대중들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세안공동체 출범 이후 더욱 역동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민중들의 일상 속에서 아세안과 동남아는 창조되고 재창조되며, 또한 매일의 조정을 통해 변화하고 있다(Curaming 2018, 48-49).

이러한 논쟁에 대해 한국 동남아 학계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한국의 동남아 연구가 전체로서의 동남아를 인식하고, 방법론을 모색하며, 체계적인 교육 방안은 구축하는 일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제에 따른 개별국가 사례를 단순히 종합하는 것을 동남아 연구로 인식해왔으며, 주제적인 고민 없이 기존에 구축된 지역연구 방법론을 답습해 왔다. 또한, 동남아 교육을 위한 교재나 커리큘럼 개발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 모델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황무지와 같던 한국의 동남아 연구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 노력하며 양적인 팽창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지역연구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⁹⁾ 속에서도 한국의 동남아 연구는 ‘신남방정책’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요구와 ‘다문화 사회’의 증진과 같은 사회적 필요성의 증대로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그동안의 추구해 왔던 양적 팽창을 질적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아세안 정체성의 부상과 함께 그동안 지역 기구와 제도로서만 ‘아세안’을 바라봤던 시각을 확대하여 10개 국가를 포괄하는 실체로서의 ‘아세안’을 인정할 필요가

9) 그동안 지역연구는 서구 식민지 시대의 행정적 목적을 위해 시작되고(Hall 1947; Reid and Diokno 2003; Winichakul 2005), 이어서 “적에 대한 이해”라는 패권국가의 전쟁 수행 목적에서 출발한 것으로 인식됨으로써(Bowen 2004; Szanton 2004a)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 왔다. 즉 지역연구는 강대국의 필요로 탄생하여, 국가적 후원 아래 타지역에 대한 정보수집이라는 정책적 의도에 의해 발전해왔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이후 탈패권주의 경향과 지역 정보의 보편화 시대를 맞으며 지역연구는 그 실용적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그 입지가 점차 위축되고 있다.

있다. 즉 나무를 통해 숲을 상상했던 과거로부터 숲을 인식하고 그 속에서 나무를 살펴보는 방법론적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Ⅲ. 아세안 연구의 현실적 필요성

한국 동남아 학계에서는 동남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동남아 관련 교육의 확대와 심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의 중심에는 대학의 동남아 관련 학과의 개설과 같은 제도적 기반의 확대가 있다. 대부분의 한국 동남아 연구자들은 지역연구 관련 학과보다는 언어나 분과학문 중심의 학과에 소속되어 있으며, 해당 학과에서 동남아 연구는 주변적인 위치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남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힘들고, 또한 동남아 전공자들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도 힘들다. 이러한 결과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지역연구의 핵심 분야인 인문사회계 동남아 전문 신진연구자의 등장 추이를 통해 볼 때,¹⁰⁾ 동남아 학계는 학문 후속세대 육성에 그다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안청사·전제성 2019, 341-342). 이와 같은 동남아 학계의 저성장은 갈수록 동남아 연구 필요성이 강조되는 국가적 요구에도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국 동남아 학계가 투여한 노력에 비해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최근 동남아 학계에서도 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동남아지역학 교육 방안을 고안하고, 실천하며

10) 2000년대 후반에 동남아학회의 국가별 전문가는 73명으로 집계되었는데(박승우 2009, 235), 9년이 지난 뒤에 99명으로 늘어나 연평균 2.9명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동남아연구소의 회원은 2005년에 40명이었는데, 2018년에 63명으로 늘어서 13년간 연평균 1.8명이 증가하였다. 한편 동남아 국가나 아세안 관련 박사학위를 작성한 335명 중에서 103명만이 한국동남아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학계의 낮은 포괄성 문제의 원인으로 동남아연구의 분야별 분절 상황을 꼽고 있다(안청사·전제성 2019, 342).

그 성과와 과제를 집단적 논의 주제로 삼아 수시로 공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전제성 외 2020, 1).

현실적으로 대학에서의 학과 개설은 국가의 정책적인 측면도 있지만,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사회적 수요, 즉 신입생의 충원 문제에 직면해야 하고, 또한 졸업생들의 사회진출에 대한 비전을 고려하여 학과를 조정하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의 상황에서 많은 사립대학이 학과의 이미지를 높이려는 방안으로 내용은 그대로 두고 학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과의 이름이 예비 대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술한 태국의 월라일락 대학교 아세안 학과의 성공사례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즉 한국 사회에서 동남아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과 이를 통해 교육기반 확대를 위한 하나의 창의적 방안으로 ‘아세안’이란 용어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상에 대한 용어의 변경이 대상에 대한 이미지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진국 담론’에 뿌리를 둔 한국 사회의 동남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어눌한 언어를 구사하는 동남아 출신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주자들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다. 김일환·강범모·김홍규(2009)의 연구는 ‘차별’의 공기어(共起語)로 2000년대 후반 ‘다문화, 소수자’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과 그 집단은 언어를 통하여 비로소 사고하는 사회적 존재라고 한다(이덕호 1996, 104).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의 편견(偏見)과 ‘지식이나 경험 이전에 이루어진 판단’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의 편견(prejudice)은 인간(市場)의 올바른 지식을 방해하는 베이컨의 4가지 우상 중 ‘시장의 우상’에 비유할 수 있다.¹¹⁾ ‘시장의 우상’

11) 베이컨의 4가지 우상은 첫째로, 인류라는 종족에 대한 보편적인 선입관으로서의 ‘종족의 우상’, 둘째로, 개인적 편견이나 주관에 사로잡힌 선입관으로서의 ‘동굴의

은 직접적인 관찰이나 경험 없이 다른 사람 말만 듣고 그럴 것이라고 착각하는 편견을 의미한다. 베이컨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성에 의해 언어가 지배된다고 믿지만, 실상은 언어가 지성에 반작용하여 지성을 움직이는 일도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박은진 2006, 53). 같은 맥락에서 대상에 대한 호칭의 변화는 언어와 인식의 역동적인 관계를 통해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모색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들이 ‘아세안’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 한-아세안센터에서는 2012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5년간 국내 웹과 소셜 네트워크상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SKT 소셜 분석 플랫폼(Smart Insight)을 활용하여 분석한 적이 있다(원지현 외, 2018). 직접적인 의도는 아니었지만, 해당 조사 결과에서는 한국인들이 동남아와 아세안이라 두 용어에 대해 조금은 다른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수집 기간 내에 생성된 동남아와 아세안 관련 문서량은 큰 차이를 나타냈다. 아세안 대비 동남아 문서량은 약 4.5배 많았다.¹²⁾ 아세안 문서량이 적은 이유는 아세안이라는 주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가 동남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아세안은 특정 기관, 단체, 사람 등 관계자들만의 커뮤니티로 인지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동남아와 아세안 관련 문서가 발생하는 채널 점유율에도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동남아의 경우 실제 국민들의 개인 계정 활용형인 SNS와 블로그 채널에서 63%의 문서가 발생하였고, 아세안은 대중 매체 채널인 뉴

우상’, 셋째로, 언어의 부적당한 사용에 따라 생기는 선입관으로서의 ‘시장의 우상’, 마지막으로, 권위자의 말이나 학설에 의하여 생기는 선입관으로서의 ‘극장의 우상’이다(이희용 2019, 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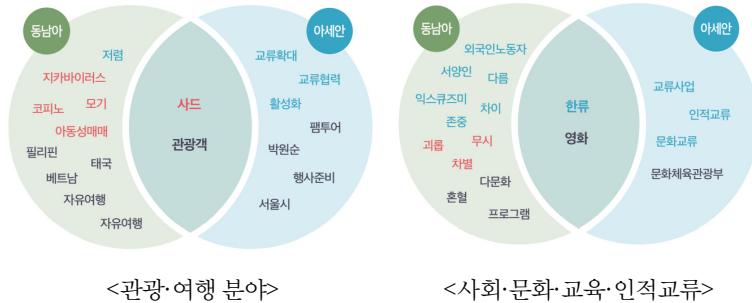
12) 동남아와 관련하여서는 총 1,067,144건, 연평균 약 18만 건의 문서가 발생하였다. 동남아 국가 명소와 먹거리, 여행 후기들이 매년 다량 생성되고 있었다. 연도마다 발생한 이슈(동남아 유흥/전쟁 무기/지카 바이러스/성매매 등)로 인해 특정 시점에 문서량이 급증하는 트렌드를 보였다. 반면 아세안 및 한-아세안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총 230,077건, 연평균 약 4만 6천 건의 문서가 발생하였다. 매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공동체·협업체 활동과 관련하여 문서량이 증가하는 트렌드를 보였다(원지현 외 2018, 21-22).

스에서만 52%의 문서가 생성되었다. 일반 국민들은 동남아라는 주제 키워드가 친숙하고, 다양한 관심거리가 많아 개인 소셜 공간에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아세안은 언론 매체에 의존적이며 타채널 모두 뉴스 보도 자체를 다수 인용하거나 스크랩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원지현 외 2018, 22).

빅데이터 분석은 키워드 분석(Keyword Frequency Analysis)과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을 통해 실시되었다.¹³⁾ 동남아와 아세안 인식 비교를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주요 4대 분야(정치·안보; 경제·무역·투자; 관광·여행; 사회·문화·교육·인적교류)를 분류했다. 동남아 및 아세안 관련 주요 연관어, 주요 이슈, 감성 표현어에서 각각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안보 분야와 경제·무역·투자 분야는 주로 국가 외교 관계나 경제협력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대중적인 인식보다는 전문적인 견해를 보여주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관광·여행 분야와 사회·문화·교육·인적교류 분야는 대중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대중적인 인식을 감지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1>은 동남아와 아세안 용어를 중심으로 관광·여행 분야와 사회·문화·교육·인적교류 분야에서 언급된 상위 200위 내 키워드 리스트에서 중복을 제거한 후 비교하여 정리한 내용이다(원지현 외 2018, 23).

13) 키워드 분석(Keyword Frequency Analysis)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키워드 랭킹 분석은 포괄적인 분석 방법이며, 분석 주제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된 명사 키워드들을 순차적으로 확인하여 상위 빈출 키워드 리스트 및 트렌드 파악이 가능하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보다 선별적인 분석 방법에 속하는데, 주요 핵심 키워드의 연관 키워드들을 추출함으로써 상세 이슈 파악 및 내용 분석을 수행한다.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은 수집된 문서 내에서 발생한 동사(서술어)를 추출하여 긍·부정 의견을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원지현 외 2018, 15).

〈그림 1〉 동남아/아세안 키워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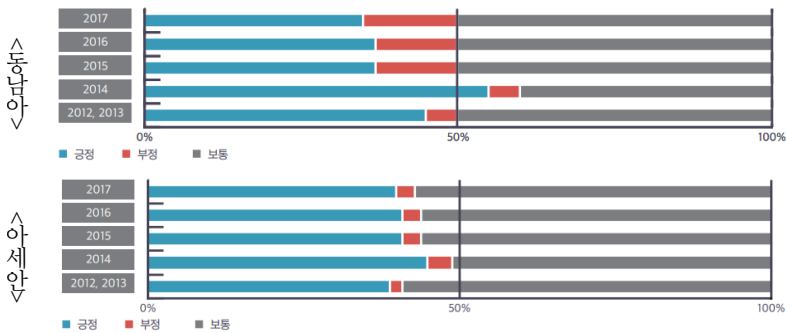
출처: 한-아세안센터 2017, 29-30

관광·여행 분야 동남아 관련 키워드로 태국/베트남/필리핀 3개 국가명이 5년 동안 상위에 꾸준히 언급되며, 한국인이 선호하는 인기 여행지임이 확인되었다. 개별국가 여행과 관련하여 지카바이러스, 코피노, 모기, 아동성매매 등 일부 부정적인 키워드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반면 아세안 관련 키워드들은 특정 국가명 대신 교류확대/교류협력/활성화 등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관광 교류의 긍정적인 내용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아세안은 실제 관광 지역으로서의 인식보다는 정부 및 기업의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공동체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문화·교육·인적교류 분야 동남아 및 아세안 모두 공통적으로 한류/영화에 대한 언급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유독 동남아 키워드 관련 조사에서만 ‘인종차별’과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 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인의 동남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선입견과 관련하여 확인한 부정 감정 키워드들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원지현 외 2018, 29-30).

빅데이터 분석 영역 중에 감성 분석이 있으며, 이는 텍스트에 나타난 사람들의 태도, 의견, 성향과 같은 주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키워드를 중심으로 텍스트 데이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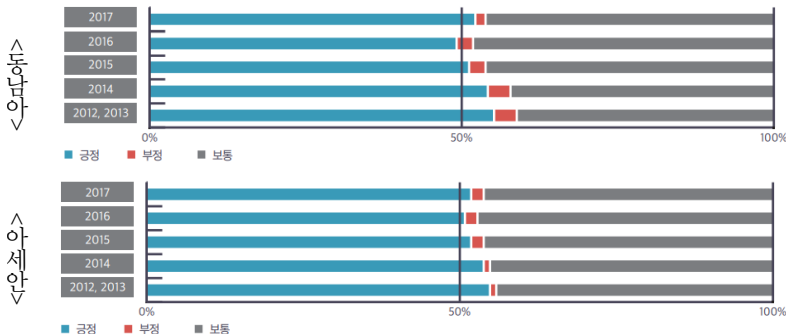
수집하고, 텍스트 정제과정을 거쳐 감성 분석에 사용될 용어만을 분리한 후, 미리 만들어 둔 감성어 사전과 매칭해 감성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주로 결과는 긍정, 부정, 보통으로 나누어 표시된다. 한-아세안센터에서 동남아와 아세안을 키워드로 수집한 자료 중에 관광·여행 분야와 사회·문화·교육·인적교류 분야의 데이터를 감성분석한 결과를 아래의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2〉 동남아/아세안 관련 감성분석 - 관광·여행 분야



출처: 원지현 외 2018, 68

〈그림 3〉 동남아/아세안 관련 감성분석 - 사회·문화·인적교류 분야



출처: 원지현 외 2018, 69

<그림 2> <그림 3>의 결과에 따르면, 두 분야 모두 긍정 비율이 부정 비율과 비교해 월등히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관광·여행 분야에 서 아세안과 비교해 동남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훨씬 두드러진 현상을 볼 수 있다. 사회·문화·인적교류 분야에서도 미세하긴 하지만, 아세안 보다 동남아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강함을 볼 수 있다. 이는 동일한 지역에 대한 감정이 사용하는 용어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나타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와 아세안 키워드에 대한 보다 최근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또 다른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텍스툼(Texto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데이터 수집 기간은 최근 5년(2015.01.01.~2019.12.31.)으로 하였으며, 수집 채널은 국내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의 모든 섹션을 대상으로 했다. 수집 키워드는 동남아와 아세안으로 하였으며,¹⁴⁾ 수집 결과 동남아 용어 문서는 8,347건이 검색되었고, 아세안 용어 문서는 6,953건이 검색되었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 주요 연관어를 중심으로 한 워드 클라우드와 연관어 간의 상관도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각각 아래와 같다.

〈그림 4〉 동남아 워드 클라우드 및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출처: 저자 분석

- 14) 동남아와 아세안 용어의 상호 중복 사용 경우를 제외하기 위해 연산자 (-)를 사용하여 키워드 동남아에서는 아세안 용어 등장 문서를 제외하고, 키워드 아세안에서는 동남아 용어 등장 문서를 제외하였다. 검색 후 동남아시아로 분리된 단어는 모두 동남아로 변경시켰다.

있는 편견의 요소와는 거리가 있는 대통령, 정상회담과 같은 보다 수평적인 관계로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용어으로써 간주한다면, 동남아보다는 아세안이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목적에 더욱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를 전공하는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 창의융합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동남아’와 ‘아세안’ 용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질문의 문항들은 해당 용어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인식하느냐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문 1)에서 문5)까지는 긍정적인 형용사(신뢰, 호감, 유능, 부지런, 합리적)를 동남아와 아세안을 주어로 각각 제시하고, 5척도(Likert scale: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주어 응답하게 했다. 위와 같은 설문 방식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된 임성택(2003)과 김종태·한기덕(2013)의 연구를 참조하여 구성했다. 문6과 문7은 나 혹은 우리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으로 첨부하였다. 설문의 방식은 동일한 질문에 동남아를 주어로 한 A형 설문지와 아세안을 주어로 한 B형 설문지를 각각 다른 학생들에게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여 배포하여 응답하도록 했다. A형(동남아) 설문지는 총 112명이 응답했으며, B형(동남아) 설문지는 총 101명이 응답했다.¹⁵⁾

15) A형(동남아)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33%, 여자 67%, 연령대는 20-28세이다. B형(아세안)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23.8%, 여자 76.2%, 연령대는 20-27세이다. 본 설문은 대표성이나 샘플의 크기 등의 문제로 교차분석과 같은 통계분석은 시행하지 않았다. 향후 체계적인 설계와 충분한 샘플을 확보하여 보다 객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설문지의 배포와 수거를 도와준 동남아창의융합학부 김나연 조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표 2〉 동남아/아세안 용어에 따른 인식 차이

질문 문항*	동남아			아세안		
	긍정(%)**	부정(%)**	보통(%)	긍정(%)**	부정(%)**	보통(%)
문1) 신뢰	27.7	26.8	46.4	36.69	10.9	54.5
문2) 호감	54.4	8.9	37.5	61.4	6.9	33.7
문3) 유능	34.9	8.9	60.7	47.5	3.0	53.5
문4) 부지런	49.1	21.5	31.3	55.5	16.9	32.7
문5) 합리적	26.8	20.5	51.0	38.6	13.3	50.5
문6) 중요	90.2	0.9	9.8	93.0	0.0	9.9
문7) 유리	70.5	6.3	25.0	69.3	5.0	30.7

* 문1) 동남아/아세안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다; 문2) 동남아/아세안 사람들에게 호감이 간다; 문3) 주동남아/아세안 사람들은 유능하다; 문4) 동남아/아세안 사람들은 부지런하다; 문5) 동남아/아세안 사람들은 합리적이다; 문6) 동남아/아세안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미래 동반자이다; 문7) 동남아/아세안 관련 전공을 하면, 졸업 후 사회진출에 유리하다.

** (매우 그렇다+그렇다), (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표 2>는 각 설문문의 결과를 긍정 비율과 부정 비율, 그리고 보통 비율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용어의 긍정적 인식 여부를 묻는 문1)에서 문5)까지의 답변을 보면, 동남아를 주어로 한 문항보다 아세안을 주어로 한 문항에 대한 긍정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6.4~12.6% 높게 나타나며, 반면 부정의 비율은 동남아를 주어로 한 문항이 아세안을 주어로 한 문항보다 2.0~15.9%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동남아라는 용어보다 아세안이라는 용어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우리와 자신과의 관계를 묻는 문항인 문6)과 문7)에서는 긍정의 비율이 부정의 비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90.0%가 넘는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이는 아세안/동남아 사람들에 대한 인식과 관계없이 해당 지역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은 말해 준다. 위의 설문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국민에게 편견의 대상으로 각인되었던 동남아라는 용어를 아세

안이라는 용어로 대체함으로써 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IV. 맺음말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향후 한국과 아세안이 ‘평화와 번영의 미래공동체’로 나아가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미래공동체에 대한 비전이 성취되기 위한 첫걸음은 양측 국민 간의 깊은 이해와 상호 존중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동남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편견을 없애는 일은 신남방정책의 진정성과 실효성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 사회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동남아에 대한 편견은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선진국 담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국민이 동남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동안 우리 학계에서는 사회에 만연한 동남아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이 상업적 목적에 의한 비전문가들의 무분별한 정보의 생산과 확산에 있다고 보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데에는 우리 사회에 동남아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및 연구 기반의 절대적 부족을 꼽기도 했다. 신남방정책과 같은 국가의 정책적 요구와 교류 확대에 다른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동남아 교육과 연구의 제도적 기반이 확대되려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동남아 교육 및 연구 기반 확대가 지지부진한 데에는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동남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관련이 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생존경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대학 교육 현실 속에서 입시 경쟁에 유리한 학과를 중심으로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학의 정책결정자들이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되는 동남아를 신설 학과로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 연구의 제도적 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아세안 연구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우리 사회에는 동남아와 동일한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아세안’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비록 일반 대중들은 아세안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지만, 점차 익숙한 용어로 등장하고 있다. 매년 개최되는 아세안 정상회담에 우리 대통령이 참석하는 모습이 보도되고, 우리 정부의 대표적인 외교 정책으로서 아세안을 주요 대상으로 한 신남방정책도 자주 언론에 등장한다. 근래 동남아 관련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아세안 센터와 아세안문화원, 그리고 새롭게 출범하는 한-아세안 ICT 융합빌리지 등 다양한 공공기관이 다양한 분야에서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물론 동남아 현지를 방문하면 공항에서부터 쉽게 접하게 되는 용어가 바로 아세안이다. 이처럼 아세안이란 용어가 점차 우리 사회에 대중적인 용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아세안이란 용어의 대중적인 확산과는 달리 우리 학계에서는 아세안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우리 동남아 학계에서는 동남아 연구와 아세안 연구를 각각 지역연구와 제도연구로 엄격히 구분하여 접근해 왔다. 또한, 동남아를 하나의 유기적 체계로 접근하기보다는 개별국가의 합으로 인식하는 경향 강하며, 아세안에 대한 연구는 지역주의와 경제협력과 같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졌다. 이러한 우리 학계의 동남아 접근방법에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 비록 동남아는 순수하게 지리적 용어로 시작되었고, 아세안은 제도 혹은 기구를 지칭하는 용어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두 용어는 동의어처럼 사용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2015년 아세안공동체 창설을 계기로 그동안 외부 세력에 의해 추상적으로 규정된 동남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이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되었다. 더불어 식민시대를 거치면서 타자화되고 국가 단위로 분열되었던 동남아의 지역 정체성이 내부에서 주도적으로 통합된 아세안 정체성을 ‘상

상'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러한 맥락 하에 우리 동남아 학계도 아세안 연구를 제도연구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지역연구의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지역연구로서 아세안 연구의 활성화는 다양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세안이란 용어는 지역 기구라는 의미를 넘어 지역 그 자체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동일한 지역을 지칭하는 동남아란 용어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각종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볼 수 있다. 이는 언어가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동남아'라는 용어에 내재된 편견을 해소하고 올바르게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세안'이 가지는 가능성을 말해 준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동남아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대학의 동남아 관련 학과 설립과 같은 교육과 연구의 기반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세안 연구는 우리 동남아 학계가 탈냉전과 지구화의 흐름 속에서 위축되고 있는 지역연구의 세계적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일찍이 야노 토루(2009)는 과거 타자화되었던 지역연구의 대상이 지역연구의 주체로 부상하여 내부자적 관점을 제시하고, 외부자적 관점과 상호 교류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외부자에게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내부자에게는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이를 창조적으로 재생산해 낼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전경수(1999, 5)는 지역연구라는 것을 하는 목적의 중심축이 '나'와 '나의 실리'로부터 '남'과 '남의 이해'로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세안 연구는 동남아 연구의 미래 지향적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지역연구 분야로서 우리의 동남아 학계는 대상 지역에 대한 인식론적 논의나 합의 없이 기존에 구

축된 개념과 이론 그리고 방법을 그대로 수용하여 사용해 왔다. 향후 보다 명확한 지리적 범위를 제공하고 지역 정체성 구축의 중심에 있는 아세안을 지역연구의 단위로 삼아 연구함으로써 그동안 축적해 온 동남아 연구의 양적 성과를 질적 심화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투 고 일: 2021년 1월 14일

심 사 완 료 일: 2021년 2월 07일

게 재 확 정 일: 2021년 2월 07일

참고문헌

- 김선희. 2018. “ASEAN 관련 글로벌연구 동향 분석.” 『아시아리뷰』 8(1): 131-154.
- 김일환·강범모·김흥규. 2012. “공기어를 이용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의 추이 분석 - 2000~2009년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21: 175-202.
- 김종태·한기덕. 2013. “한국 대학생의 외국인 차별 의식의 근원 - 민족, 문명, 선진국 담론의 비판적 검증.” 『담론201』 16(3): 35-66.
- 김형중. 2017. “한국의 아세안 연구: ‘아세안학’의 모색?” 『아시아리뷰』 7(1): 199-226.
- _____. 2019. “한국의 아세안 연구.” 안청사·전제성 엮음. 『한국의 동남아시아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희정. 2017. “한국 거주 이주민 출신국에 따른 고정관념의 탐색.” 『미디어, 젠더&문화』 32(2): 125-173.
- 다카야 요시카즈. 아시아지역경제연구회 옮김. 1997. “‘지역’이란 무엇인가?” 야노 토루 엮음. 『지역연구의 방법』 서울: 전예원.

- 매리 하이듀스, 박장식·김동엽 공역. 2012. 『동남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서울: 솔과학.
- 밀턴 오스본, 조흥국 역. 2000. 『한 권에 담은 동남아시아 역사』. 서울: 도서출판 오름.
- 박사명. 2006. 『동아시아의 새로운 모색: 전장에서 시장으로, 시장에서 광장으로』 서울: 이매진.
- 박승우. 2009. “한국의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사회과학 분야 제2세대 동남아 지역연구자에 대한 심층 분석.” 『동남아시아연구』 19(1): 215-276.
- 박은진. 2006. “베이컨 『신기관』.” 『철학사상』 별책 7(12).
- 박장식. 2000. “동남아시아 지역성에 대한 인식론적 대비.” 『동남아시아연구』 10: 221-250.
- 박장식 엮음. 2019. 『총체적 단위로서의 동남아시아의 인식과 구성』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신윤환. 2015. “한국의 동남아연구: 반성적 회고.” 『동남아시아연구』 25(4): 37-75.
- 안청시·전제성 엮음. 2019. 『한국의 동남아시아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야노 토루 엮음. 아시아지역경제연구회 옮김. 1997. 『지역연구의 방법』. 서울: 전예원.
- 야노 토루 엮음. 부산외대아시아지역연구소 옮김. 1999. 『지역연구와 세계단위론』. 서울: 전예원.
- 원지현·모니카 둘로스·이수지·김현지. 2018. 『국내 아세안 인식 조사를 위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 서울: 한-아세안센터.
- 이덕호. 1996. “언어와 성의 사회인식적 상호관계 - 독일어의 미혼여성 호칭 Frulein의 부침을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5: 101-127.
- 이희용. 2019. “편견에 대한 해석학적 성찰.” 『현대유럽철학연구』 52: 161-195.

- 임성택. 2003. “세계시민교육 관점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한국학생들의 고정관념 분석.” 『교육학연구』 41(3): 275-301.
- 전경수. 1999. 『지역연구, 어떻게 하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전제성. 2014. “한국의 동남아 지역연구 현황과 지리학의 기여 가능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4): 379-392.
- _____. 2019. “한국의 동남아연구 재발견과 학계의 과제.” 안청시·전제성 엮음. 『한국의 동남아시아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전제성·김현경·박사명. 2020. “한국 대학의 동남아 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전동연) 이슈 페이퍼 4.
- 전제성·이재현. 2008. “한국의 동남아학 교육과정과 지역연구자 육성모델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18(2): 255-297.
- 조하나·박은혜. 2013. “혼혈에 대한 사회적 의미 - 1950년~2011년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14: 367-407
- 조흥국. 2019. 『동남아의 역사와 문화: 여상이 이끄는 세계』. 서울: 소나무.
- 최병욱. 2015. 『동남아시아사: 전통시대』. 서울: 산인.
- _____. 2016. 『동남아시아사: 민족주의 시대』. 서울: 산인.
- 한국동남아연구소. 2010. 『동남아의 한국에 대한 인식』. 서울: 명인출판사.
- 한국동남아연구소. 2017. 『한국과 아세안 청년의 상호 인식』. 서울: 한-아세안센터.
- 한-아세안센터. 2020. 『2019 한-아세안 통계집』. 서울: 한-아세안센터 정보자료국.

Acharya, Amitave. 2017. “The Evolution and Limitations of ASEAN Identity.” Aileen Vaviera and Larry Maramis, eds. *Building ASEAN Community: Political-Security and Socio-cultural Reflections*. ASEAN@50 4.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 Anderson, Benedict. 1983. *Imagined Community: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 Bowen, John. 2004. "The Development of Southeast Asian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Politics of Knowledge: Area Studies and Disciplines*. David L. Szanton, e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aballero-Anthony, Mely. 2010. "Non-Traditional Security Challenges, Regional, Governance, and the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APSC)." *Asia Security Initiative Policy Series Working Paper* no. 7. Singapore: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 Chang, Jun Yan. 2016. "Essence of security communities: explaining ASEAN."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16(3): 335-369.
- Cook, Malcom. 2018. "ASEAN is not South East Asia."
<https://www.lowyinstitute.org/the-interpreter/asean-not-south-east-asia>.(검색일: 2020.08.12).
- Curaming, Rommel A. 2018. "From Southeast Asian Studies to ASEAN Studies: What's in a Name Change?" *SUVANNABHUMI* 10(2): 31-55.
- Emmerson, D. K. 1984. "Southeast Asia: Whats in a Name?"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15(1): 1-21.
- Fukudake, Shintaro. 2015. "A Historical Review of Japanese Area Studies and the Emergence of Global Studies." *SUVANNABHUMI* 7(1): 77-88.
- Hall, Robert. 1947. *Area Stud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ir Implications for Social Science Research*. New York: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 Henley, David. 2020. "Southeast Asian Studies and the Reality of Southeast Asia." *SUVANNABHUMI* 12(2): 19-52.
- Hooi, Khoo Ying. 2020. "Regional Identity and Belonging: Timor-Leste and ASEAN." *SUVANNABHUMI* 12(2): 119-140.
- Indorf, Hans H. 1987. "ASEAN in Extra-regional Perspective." *Contemporary Southeast Asia* 9(2): 86-105.
- Jones, Catherine. 2015. "Great Powers, ASEAN, and Security: Reason for Optimism?" *The Pacific Review* 28(2): 259-280.
- Jones, David Martin and Michael L. R. Smith. 2002. "ASEAN's Imitation Community." *Orbis: A Journal of World Affairs* 46(1): 93-109.
- Kasetsiri, Charnvit. 2015. *Studies in Thai and Southeast Asian Histories*. Bangkok: Foundation for the Promotion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Textbooks Project.
- Khoo, How San. 2000. "ASEAN as a Neighborhood Watch Group." *Contemporary Southeast Asia* 22(2): 279-301.
- Kim, Dong-Yeob. 1998. "Assessing The Persistence Capability of ASEAN as a Regional Regime." M. A. Thesis,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 Kingsbury, Damien. 2011. "Post-colonial States, Ethnic Minorities and Separatist Conflicts: Case Studies from Southeast and South Asia." *Ethnic & Racial Studies* 34(5): 762-778.
- Lee, Jun Jie. 2020. "Colonialism and ASEAN Identity: Inherited 'Mental Barriers' Hindering the Formation of a Collective ASEAN Identity." <https://kyotoreview.org/trendsetters/colonialism-asean-identity/>(검색일: 2020.08.12).
- Murti, Gita. 2016. "ASEAN's 'One Identity and One Community': A Slogan or a Reality?"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March 14. <https://www.yalejournal.org/publications/aseans-one-identity-and->

- one-community-a-slogan-or-a-reality(검색일 2020.08.12).
- Noor, Farish A. 2016. *The Discursive Construction of Southeast Asia in 19th Century Colonial-Capitalist Discourse*.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 Paasi, Anssi. 2011. "The Region, Identity and Power." *Procedia Social and Behavioural Sciences* 14: 9-16.
- Puchala, Donald J. 1984. "The Integration Theorists and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harles W. Kegley and Eugene R. Wittkopf, eds. *The Global Agenda: Issues and Perspectives*. New York: Random House.
- Pulteney, Charles. 1985. "Area Studies: A World without Peasants, Industry, Technology and the Natural Science." *Journal of Area Studies* 12: 3-9.
- Reid, Anthony and Maria Serena Diokno. 2003. "Completing the Circle: Southeast Asian Studies in Southeast Asia." Anthony Reid, ed. *Southeast Asian Studies: Pacific Perspectives*. Tempe, Arizona: Arizona State University Program for Southeast Asian Studies.
- Roberts, Christopher. 2011. "Region and Identity: The Many Faces of Southeast Asia." *Asian Politics & Policy* 3(3): 365-382.
- Schendel W. Van. 2002. "Geographies of Knowing, Geographies of Ignorance: Jumping Scale in Southeast Asia."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0(2): 647-668.
- Severino, Rodolfo C. 2006. *Southeast Asia in Search of an ASEAN Community*.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Sharpe, Samuel. 2003. "An ASEAN Way to Security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The Pacific Review* 16(2): 231-250.
- Steinberg, David Joel. 1971. *In Search of Southeast Asia: A Modern History*. Kuala Lumpur: Oxford University Press.

- Szanton, David. 2004a. “Introduction: The Origin, Nature, and Challenges of Area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David Szanton, ed. *Politics of Knowledge: Area Studies and the Disciplin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2004b. *The Politics of Knowledge: Area Studies and the Disciplin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Tang, Siew Mun et al. 2020. *The State of Southeast Asia: 2020 Survey Report*. Singapore: ISEAS-Yusof Ishak Institute.
- Thuzar, Moe. 2017. “What does it take to join ASEAN?” *ISEAS Perspective* 2017-36. Singapore: ISEAS-Yusof Ishak Institute.
- Winichakul, Tongchai. 2005. “Trying to Locate Southeast Asia from Its Navel: Where is Southeast Asian Studies in Thailand?” Paul Kratoska, Raben Remco and Henk Schulte Nordholt, eds. *Locating Southeast Asia: Geographies of Knowledge and Politics of Space*. Singapore: Singapore University Press.

Abstract

ASEAN Studies as an Area Studies:

Academic Implications and Realistic Needs

Dong—Yeob KIM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ns do not understand Southeast Asia properly but believe that Southeast Asians like and trust Korea. On the other hand, Southeast Asians do not trust much in Korea but their mass popularity of Korea is increasing.” Such ironic situation could be a result of a lack of mutual understanding, misunderstanding, and prejudice between Koreans and Southeast Asians. This should be the top priority that the “New Southern Policy,” which considers Southeast Asia as a future partner, should be corrected. This study explored the possibility of ASEAN studies as a path through the popular prejudice embedded in the term “Southeast Asia”, which hinders Koreans' true understanding of Southeast Asia and obstruct institutional expansion of Southeast Asian studies in Korea. From an academic perspective, ASEAN has been perceived as a regional organization and, ASEAN studies have been limited to institutional approach. However, given that geographical clearness encompassing 10 regional countries and that emerging regional identity since the launch of the ASEAN Community in 2015,

ASEAN could be approached as a subject of area studies. From a realistic perspective, various data analyses show that Koreans perceive the term 'ASEAN' more positively than the term 'Southeast Asia'. This tells the possibility of 'ASEAN' as a path through the prejudice inherent in the term 'Southeast Asia' based on the logic that "language could affect a person's percep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subject." This could also help promote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of Southeast Asian-related studies and education at Korean universities, which consistently advocated by Korean academia of Southeast Asian studies.

Keywords: ASEAN, Southeast Asia, ASEAN Community, New Southern Policy, Area Studies, ASEAN Studies

